아산 · 천안의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Asan and Cheonan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Lee Jae-Hoon

한 지역의 도시, 건축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순수한 의도로써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지역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지역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지역을 어떻게 설명할까?… 등등과 같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일반성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소명의식이다. 근대건축운동의 국제주의 건축양식은 20세기 건축을 주도해 오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상자형 건물"을 모토로 세계건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는 하나의 이웃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인류의 공통문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경향은 범세계적인(Global) 것과 지역적인(Local) 것의 대립을 야기하였으며, 세계화(Globalism)는 지역성(Locality)을 무시하고 제외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리하여 20세기후반 들어 근대기능주의 건축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지역건축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더이상 세계는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대립이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세계로"라는 새로운 모토가 주장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Local이 단지 한 지역의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의 궤도를 넓히는 위치에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논의는 자신의 발견이라는 낭만적 자세뿐만 아니라 인류보편 문화에의 기여라는 소명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건축, 도시에서의 지역성은 기후, 지형 등의 지리적 인자와 인종, 역사, 문화 등의 인문적 인자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규모면에서 보거나 인종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안에서의 지역구분은 사실 큰 의미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비슷한 건물에 비슷한 가로망,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서울이나 대전, 부산이 도시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도시속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뿐 만이 아니라 천안이나 청주, 공주, 김천, 평택 등의 중소규모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디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길들이 넓게 뚫려 있으며, 상점들이 도열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6 · 25이후의 똑같은 시점에 서울을 표준모델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지나치게 문제를 간략화하여 보는 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만 하더라도 인구35만의 도시로 1990년까지만 하여도 5층 이하의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10분이면 지나치고, 논과 밭을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거리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일제시대의 건물들도 눈에 띄며 곳곳에 역사의 향취가 느껴지는 장소들이 있다. 보고자 하는 의도와 깊이가 있다면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잠재하는 도시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시 건축의 모습이 축약되어 다른 도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의 전부처럼 보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도시의 이면적 문화는 다른 도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건축, 도시의 지역성이 눈으로 보여지는 한국의 현대 건축 현황에 의해서는 거의 찾아질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역의 문화측면에서는 그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인 형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의 도시, 건축의 특성을 살리는 의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천안시 봉선 홍경사 비갈

천안삼거리

천안시 신부동 저층 상가주택
(건물형태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정비된 느낌을 준다)

천안의 도시탐색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안성 I. C.를 지나 고속도로 서측면에 길게 늘여 뜨려진 큰산을 만나게 된다. 차령산맥의 줄기이다. 옛날 이 태조가 이곳을 지나면서 그 산의 웅자함에 길을 더 가지 못하고 산에 제를 지내고 지났다고 하는 성거산, 태조산 줄기이다. 고속도로는 이 산 줄기의 끝으로 돌아 천안 I. C.에 도착한다. 즉 천안은 차령산맥의 준령이 잠시 멈춘 지점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천안의 지명 태동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이곳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다투던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이 없었으며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이 편안하면 天下가 便安하다' 라는 말로부터 天安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 만큼 이곳은 3남 지방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한 길목이었을 것이며, 조선시대의 천안삼거리(天安三巨里)가 비단 그때 생겨난 의미가 아님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천안지역이 길목으로서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현감이 천안 북쪽의 직산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리 큰 도읍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천안은 일제시대 大田驛과 함께 天安驛이 생겨나면서 의도적으로 커진 도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은 변함없었다.

경부선 철도, 장항선 철도, 안성선 철도가 X자 모양으로 천안을 가로지르며 경부고속도로가 천안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2000년경에는 고속철도가 또다시 남북을 가로지르게 되며,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겨난다. 주말이면 서해안 방면으로 향하는 자동차들이 천안을 경유하며 지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도시의 의미에 걸맞는 도시, 건축으로는 넓게 뚫린 외곽도로, 대규모의 터미널 건물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천안 3거리는 그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히 고증이 안된 채 조그만 길옆에 공원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교통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시스템의 가시적 모습이나 교통문화의 성숙된 모습, 교통박물관 하나 없는 상황이다. 지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졌던 도시의 정체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천안의 또 다른 특징은 천안에는 별이 12개, 용이 14마리, 그 밖에 봉황이 4마리 등 하늘과 관련된 洞이름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이다. 星井洞, 星村洞, 城星洞, 九星洞과 新龍洞, 淸龍洞, 大龍洞, 龍谷洞, 雙龍洞, 三龍洞, 五龍洞과 雙鳳洞, 鳳鳴洞, 鳳接山 등이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지형조건에 따라 붙여지거나,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신문명을 상징화하는 洞名이 많은데 천안에서는 하늘과 관계된 별, 용, 봉황의 이름이 많이 붙여져 어떠한 잠재적인 의미가 숨겨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천안의 '하늘 이미지' 는 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도시의 형상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굳이 찾아보자면 천안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호수(湖水)가 하늘을 담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천안의 도시구조는 특이하다. 차령산맥과 고속도로, 기차길의 3축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짐으로 해서 사각의 도시이지만 선형적이다. 동측으로부터 산지, 고속도로, 고속도로와 기찻길 사이의 구 시가지, 봉접산의 선형에 가로막혀 있는 기찻길 서측면의 신 개발지로 연결되어, 이들은 도시의 큰 축을 이루며 도시를 선적으로 분할된 양상으로 보여준다.

개발시기도 달라 각 선적인 도시벨트는 구시가지, 신개발지, 자연녹지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서로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등으로 연결되어 대나무 바구니를 짜듯이 수직, 수평의 재미난 도시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고속전철이 들어서면 또다시 반복될 도시구조로서 천안의 운명적인 도시모습을 예상케 한다. 선적으로 분할된 도시구조를 그 특성으로 살려 자연과 인공, 구시대와 신시대의 조화를 갖는 도시를 일궈내는 것은 현대도시 천안이 만들어갈 수 있는 내적인 가능성일 수 있을 것이다.

천안에 대학과 연수원이 많은 것은 또 다른 특성중의 하나이다. 도시에 바로 인접하여 소위 분위기 나는 큰산이 있고,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덕분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가까스로 벗어난 천안에 많은 시설들이

천안시 성환의 과수원 및 축산농가 전경

천안시 쌍룡동 전철역세권 지역 개발 상태

천안시 성환의 아파트
(시골에 고층아파트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주변부에 독립적으로 하나씩 들어섬으로 해서 천안의 기존 도시형태와 조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현실이다.

그 밖에 천안에는 아직도 농경지가 많고, 옛부터 내려오던 길 형식 때문에 5거리 체계가 남아 있으며, 신개발이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되어 도시 어느 구석이거나 고층 아파트로 들어차 있다. 건물은 모양만 다른 상자곽이며, 터미널 주변에는 음식점들이 들어차 있고 밤이면 젊은이들이 배회하는 조그만 길도 있다.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채 시커먼 물을 흘려 보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일 것이다.

아산의 도시탐색

아산시는 우리나라 중서부의 충청남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 충남권을 관통하는 장항선 철도의 관문도시이자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권 배후거점도시이다. 아산시는 구 온양시와 아산군이 합쳐진 도시로 도시적 성격이 나타나는 곳은 구 온양시가지 뿐이며 나머지는 읍, 면의 마을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시 외곽의 마을구성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건축, 도시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아산시보다는 온양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구 온양시 일곽을 중심으로 아산시의 도시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 온양시는 차령산맥의 북쪽 줄기에 위치하여 남쪽에는 차령산맥의 지류인 설화연봉이 뻗쳐 있다. 또 동북으로는 무한천, 곡교천이 흐르는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시가지 남쪽으로는 산맥이, 북쪽으로는 하천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또 두 지형사이를 장항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3개의 큰 수평축이 온양의 도시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천안과는 수평 · 수직축이 서로 다른 점이기도 하지만 온양의 인구가 7만 정도로 도시규모에 있어 훨씬 작으며 아직까지는 역세권 중심으로 짜여진 소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 앞의 T자형 도로가 중심도로이며 모든 교통은 이곳으로 통한다.

아산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온천이 있는 휴양도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조선 성종왕이 온천을 하고 간 기록을 비롯하여 일제시대 들어서면서 온천지역의 개발붐과 함께 성장한 도시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구 온양시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1 · 2차 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크며, 3차 산업도 대부분은 음식 숙박업이 차지하고 있다. 관광자원인 온천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주된 도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목욕탕, 호텔, 식당 등의 1차적 시설을 제외하면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제대로 틀을 잡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관광지로서 온천기능 이상의 이미지 연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온양 관광호텔이 온천 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의미전달을 위해 銘文을 보관하고 정원을 꾸미고 입구 지붕을 한옥으로 처리하는 등의 단지적 성격을 이룸으로써 온양시가지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산 현충사나 온양 민속 박물관,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등의 문화적 관광자원들이 있으나 독립된 도시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요소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970년대 후반 조성된 아산 방조제와 삽교호 방조제는 충남 서해안과 경기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의 개발이었다. 천안을 거쳐야만 하던 충남 서해안 권역이 아산을 거쳐서도 직접 연결됨으로서 아산지역에 산업투자를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공장들이 시가지를 벗어난 농촌 구릉지에 세워져 자연경관을 변형시켰으며 앞으로도 천안 · 아산지역에 고속전철역이 생김으로서 더욱더 많은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산시 온양관광호텔

아산호 방조제

산과 시선을 막고 있는 아산시의 아파트단지